



광남일보



광주 충장로에 '홍콩 분위기' 임했다
6일 '홍콩골목' 오픈... "상권 신바람 기대" 5

장성, 지역균형발전 로드맵 실현 '착착'
김한중 군수 "11개 읍·면 동행·성장 완성" 8

곡성 특산물, 'K-푸드'로 재탄생
조상래 군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9

전형관 월하석류농원 대표, 이달의 임업인 선정
원액·즙·식초 등 다양한 가공품 개발...연매출 3억 14

“폭우 피해 민생안정에 행정력 총동원”

광주시가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822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복구와 시민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특히 신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고,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별 근본 대책도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시청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호우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 대책'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먼저 사업비 822억원을 투입,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신속 복구하고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의 51.7%에 달하는 425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으며, 시비 143억원, 구비 232억원, 기타 2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공공시설 복구에는 564억원이 투입된다.

주택 침수 및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258억원을 지원한다. 주택 침수 세대에는 최대 900만원(재난지원금 700만원, 의원금 200만원),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재난지원금 800만원, 구호기금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위로금이 추가돼 기존보다 2배 가량 확대됐다. 특히 피해 주민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반복되는 호우 피해를 예방하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5개 자치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호우피해 복구 및 침수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5개 자치구와 협력...822억 긴급 투입 생활안정지원금 258억 추석 전 지급...침수 예방 대책도

기 위해 침수문제 해결 대책을 3단계로 추진한다.

응급 복구와 긴급 조치에 해당하는 1단계 긴급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53억4000만원), 신안교 양벽 하루 배수구 설치와 상부 아크릴판 철거 등 신안교 일원 배수능력 개선(1억5000만원), 신안교 일원 배수펌프 설치(10억원),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 및 상가 등 1300곳에 차수관 설치(40억원) 등 4개 사업에 104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2단계 중기 대책으로 신안교 일원 구조개선(60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4개소, 854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개 지구, 541억원), 하천 주변 저지대 배수펌프시설 설치(5개소, 805억원), 하수도정비종합관리사업(4개소, 1549억원) 등 18개 사업 총 4349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3단계 장기 대책으로 양동 북계상가와 서방천 북계도로의 하천 우수기능 회복을 위한 북계하천 복원 사업(양동 북계상가 1조738억원, 서방천 북계도로 6000억

원), 우수저류시설 등을 지속 추진한다. 강기정 시장은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해 '재난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는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역은 지난 여름 두 차례 극한호우(7월 16~19일, 8월 3일)로 인해 사망 2명, 재산피해 1만5871건(공공시설 414건 약 228억원, 민간시설 1만5000여건 100억원)이 발생했다.

또 호우로 인한 일시대피자는 286세대 417명에 달했다. 이같은 극심한 피해로 정부는 복구 전 지역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달 생산 재개

화재 5개월만...1공장·2공장 일부 활용 일 4000분 목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화재 발생 5개월만인 다음달 재가동에 들어간다.

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제1공장과 불에 타지 않은 2공장 일부를 활용해 다음달부터 타이어 생산을 재개한다. 하루 1000분을 시작으로 연내 4000분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기존 1공장에서는 반제품을 결합하는 성형공정과 타이어 형태로 만드는 가류공정이 이뤄지는데, 반제품을 만드는 설비만 추가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고무를 이용해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고무를 제조하는 정련공정은 100% 소실된 만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등에서 고무를 수급받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이어 생산 이후 공정은 2공장 가운데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검사, 선별, 출하 공정 등을 거치면 완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하루 1000분을 시작

으로 연말까지 4000분 생산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후 성형·가류 공정을 보강하면 하루 1만분(연간 350만분)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1000분부터 시작하지만 근로자들이 순환근무를 통해 생산능력을 끌어올리고 단계적으로 합병 이전도 추진하면 고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1단계로 연 530만분 생산을 위한 공장을 2027년 말까지 합병빛그린산단에 건설해 2028년 1월 본격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광주공장 부지 매각 시 1공장은 합병빛산장으로 이전, 이후 2단계 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구 성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 17일 타이어 기본재료를 혼합하는 정련공장 내 오는 장치에서 불이 시작돼 2공장 50~60%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속 설립 촉구

김영록 지사·국립대 총장·국회의원 공동 성명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이병운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김원익·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부에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전남도가 건의해온 2027년이면 2030년 개교를 담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 세부 이행계획 로드맵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록 지사 등은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과 세부 이행계획 발표는 환영할 일이지만, 교육부의 2030년 설립 의견에는 200만 도민이 아쉬움과 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

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국가적 과제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이를 감안해 전남도, 양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설립 시기를 앞당긴 로드맵을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에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전남도는 의대 설립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대학,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의대 정원 배정과 예비평가 인준 등 설립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hoibul@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에서 계속

‘호우 피해’ 재난특교세 광주 54억·전남 303억 지원

공공시설 복구 등 활용

행정안전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357억8000만원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23억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재난특교세가 지급되는 시·도는 광주(54억7000만원)와 전남(303억1000만원)을 비롯해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이다. 광주시는 총 54억7000만원(본청 25억

2000만원, 북구 2억원, 광산구 27억5000만원)이 교부된다.

전남도는 총 303억1000만원(본청 134억5000만원, 시·군 168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가장 피해가 컸던 담양군에 가장 많은 75억원이 투입되고, 나주 31억2000만원, 함평 18억2000만원, 영광 12

억6000만원, 구례 11억2000만원, 광양 7억8000만원, 화순과 신안에 각 6억3000만원의 호우피해 복구비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과정에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하천·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공영·체육시설 보수·보강에 주로 활용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홈페이지 웹툰 등 교육·홍보용으로 활용 가능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로 재밌게 배운다!

역사 문화 관광 스토리텔링 형상화사업

어렵게 느껴지는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안내판**으로 제작하여 우리지역에 있는 역사·문화·관광명소를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로 쉽고 빠르고 즐겁게!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나레이션된 영상을 QR코드로 만화게시판에 설치하여, 역사·문화관광지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내방객들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스토리브릿지 062-521-7779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story01920@naver.com

QR코드를 찍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만화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